담양대나무축제, 4년 만에 돌아온다

새로운 이름 '2023 New Bamboo Festival', 다양한 콘텐츠 마련

5월 3일부터 5월 7일까지 추성경기장 및 관방제림 일원에서 개최

담양군의 대표 축제인 대나무축제가 4년 만에 풍성한 프로그램과 함께 돌아온다.

담양군은 2023년 담양대나무축제의 추진 방향과 의견 수렴을 위하여 (사)담양대나무축제위원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추진일정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담양대나무축제는 『2023 New Bamboo Festival』이라는 새로운 축제명으로 변경해 오는 5월 3일부터 5월 7일까지 5일간 추성경기장 및 관방제림 일원에서 개최되며, 다양한 콘텐츠로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주무대를 추성경기장 내 야외음악당으로 옮겨 먹거리 부스와 함께 공연을 즐기며 여유롭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지역민과 함께하는 노래자랑 및 각종 경연대회 개최로 군민과 관광객이 하나되는 어울림 축제를 준비한다.

특히 축제가 지역민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농 · 특산품 판매장을 운영해 수익형 축제를 도모하고 관내 청소년 및 대학생들과 신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장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체류형 축제로의 전환을 위해 야간경관조명과 포토존을 조성하고 세대를 아우르는 야간 체험프로그램, EDM 공연, 담양 전통 주류판매 등 야간 관광콘텐츠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담양의 대표축제인 대나무축제가 4년 만에 개최되는 만큼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해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며 "안전하고 즐거운 축제를 위해 남은 기간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구례읍사무소 청사 부지 군민 품으로

김순호 군수, '국가·지자체간 국유재산 활용협의회'에 참석

김순호 전남 구례군수는 2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열린 '국가·지자체간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에서,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유재산인 구례읍사무소 청사 부지의 무상양여를 확정받았다.

이날 협의회에는 7개 광역 부단체장, 4개 기초 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유휴·저활용 상태의 국유재산의 매각 및 활용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김순호 군수는 구례읍사무소로 활용 중인 국유재산(경찰청) 부지를 무상으로 양여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구례읍사무소 건물은 구례군 소유로 되어 있으나, 부지에 대해서는 국유재산(경찰청)으로 되어 있어 부지에 대한 군 소유로 등기이전은 구례군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다.

구례군에서는 2차례에 걸쳐 경찰청에 요청하였으나, 양여 당시의 부지 번지와 현재 번지가 상이하여 양여를 보류했다. 구례읍사무소 현재 부지는 구례읍 봉동리 295-1번지이지만, 1964년 양여 당시에는 2필지(300-8, 295-1번지) 중 대표 번지가 300-8번지로 되어 있었다. 이후 토지의 분할, 합병이 여러 차례 이루어져 부지 사용 관계의 명확한 입증이 어려웠다.

이번 협의회에서 김 군수는 청사부지의 연혁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확보해 무상양여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구례읍사무소 부지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양여 요건을 갖췄다는 주장을 펼친 결과 국유재산 관리 총괄청인 기획재정부로부터 무상양여 결정을 이끌어 냈다.

이로써 구례군은 공시지가 기준 약 20억 원 상당의 국유재산 부지를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군에서는 2004년 12월 등록문화재 제120호 지정받은 구례읍사무소 건물의 보존 가치를 유지하고 청사를 공공용으로 계속하여 활용할 예정이다.

김순호 군수는 "60여 년의 군민 숙원사업이 이루어져 매우 감격스럽다"라며 "협의회가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상설 플랫폼으로서 기능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구례=박진호기자

곡성군 "우리 아이들 함께 키워요"

부모 양육 부담 경감·저출산 해소 위해 본인부담금 소득 기준 추가 지원

곡성군이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과 저출산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소득 기준에 따라 추가 지원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다자녀가정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개월부터 만 12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아종일제서비스, 시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제서비스 등이 있다.

곡성군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발생되는 본인부담금을 가~라형까지 소득기준에 따라 책정한다. 대상 가정들은 책정된 기준에 따라 최대 100%에서 60%인 150만 원에서 6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은 약 8백만 원의 본인부담금이 전액 지원된다.

또한 곡성군은 가족센터에 전담 인력을 배치해 아이돌보미의 임시보육, 놀이 활동, 등하원 동행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곡성군 아이돌봄서비스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곡성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곡성=양해영기자

화순군, 농업기계임대사업 계획 확정…심의회 개최

임대농기계 19종 34대 구입 의결

화순군은 지난 2일 화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기계임대사업 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농업기술센터 류창수 소장(위원장)을 비롯한 농업인단체 임원 등으로 구성된 6명의 위원이 참석했으며, 화순군 농업기계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심의는 농업인 설문조사와 활용률 등을 고려하여 농업기계 구매 및 안전교육 등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였으며 농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업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임대사업 발전 방향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졌다.

심의 결과 기존 보유 농업기계의 노후화 정도와 농가 사용 빈도를 고려하여 올해 농기계 구매예산 3억7700만 원으로 콩 정선기, 농업용 굴착기 등 19종 34대의 농업기계를 구매하고,

3톤 미만 지게차, 굴착기 면허취득반 등 농기계별 안전교육도 590명 대상으로 40회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화순=박순철기자

나주시, 봄철 산림보호 총력전…산불진화대 발대식

나주시가 소중한 산림 보호를 위해 봄철 산불 예방·진화, 홍보에 중점을 둔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한다.

나주시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하고 주말· 공휴일 본청과 20개 읍·면·동에 산불 선제적 대응을 위한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일 나주대교 금천방면 영산강 둔치에서는 '산불진화대 발대식'이 열렸다.

시는 발대식을 통해 산불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대원 간 결의를 다지는 한편 진화 기초지식, 안전사고 예방, 근무수칙을 안내했다.

공모를 통해 선발된 산불전문진화대원 20명은 10명씩 2개조로 나뉘어 산불예방 캠페인, 산림인접지역 무단소각 단속, 인화물질 사전 제거, 산불 초동 진화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나주=송준표기자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강판
포스코SPS 포스코엠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터미날 포스코A&C